

오디오북 대중화 시대 예고하는 인터넷 업체들

대중화 목표로 홍보와 판매망 확보에 주력

미국의 오디오북 시장은 출판시장의 10%선에 이르고 있다. 자가운전자가 늘어나고 정보욕구가 증가한 것이 성장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오디오북의 잠재시장 규모를 4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인터넷 업체들이 속속 오디오북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개발단가가 높고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된 점은 오디오북 업체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근 오디오북을 제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오디오북은 책의 내용을 전문 성우나 내레이터들이 읽어주는 책으로, 본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됐다. 그런데, 이동중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면서 책을 접할수 있다는 장점과 기술발전에 힘입어 근간 일반인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동화책과 어학 관련서가 오디오형태로 출시됐다. 그러나 최근 전문업체들이 제작·서비스하는 오디오북은 문학부터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영역을 확장, 오디오북의 대중화를 예고하고 있다.

인터넷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해

지난 8월 8일 서비스를 개시한 오디세이닷컴(www.audisay.com)은 국내 최초의 오디오북 전문회사. 시·소설·수필·동화·경제경영 등 각 분야의 책 100여권을 MP3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가는 종이책보다 10~20% 비싼 수준이지만, 약 30% 할인판매해 종이책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오디오북의 대중화를 위해 당분간 할인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또한 1권을 여러 편으로 나눠 판매하기도 하는데, 책 종류와 크기 등에 따라 1편당 3백원에서 1천2백원을 받는다.

오디세이닷컴은 내년부터 오디오북을 CD와 카세트 테이프 형태로 제작해 오프라인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SK 텔레콤과 제휴해 IMT2000 서비스가 시행되는 대로 휴대폰을 통해 오디오북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추진

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항공·한화 인터넷 방송국 등에도 오디오북을 공급할 예정이다.

소리 포털 사이트 소리아(www.sorea.com)도 지난 8월 13일부터 오디오북 서비스를 개시했다. 문학·동화·명상·영어 분야의 오디오북을 제공하며, 판타지 소설은 무료로 서비스한다. 가격은 한권당 2천원 선이며 편당 가격은 2백원~5백원이다. 5백원을 내고 24시간 동안 듣고 싶은 과일을 마음대로 고를 수도 있다.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카세트 테이프는 발송료 포함, 4천원 선이다. 소리아는 인터넷 서점 예스24, OK cashbag 등과 제휴해 오디오북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9월 10일 문을 연 사운드북스(www.soundbooks.co.kr)도 《어린 왕자》를 사운드북 1호로 출시했다. ‘사운드북’은 오디오북에 주제가와 배경음악 등이 담긴 사운드트랙을 더한 상품이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샘플과 무료 서비스만 제공하고, CD와 카세트 테이프를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출간종수가 늘면 온라인에서 파일형태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한편, 보이스테크와 바로북닷컴은 음성합성기술을 이용, 전자책의 내용을 소리로 자동전환해주는 보이스북을 개발했다. 보이스북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기계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소리가 다소 부자연스럽다는 단점이 있다. 대신 오디오북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보이스테크와 바로북닷컴은 보이스북 1호로 《현대문학전집》을 CD 한에 담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오디오북이 전체 출판시장의 10%를 차지할 만큼 대중화됐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오디오북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상태다. 이에 오디오북 업체들은 당장의 이윤보다 홍보를 일차적 목표로 삼고, 할인판매와 무료 서비스, 제휴를 통한 판매망 확보 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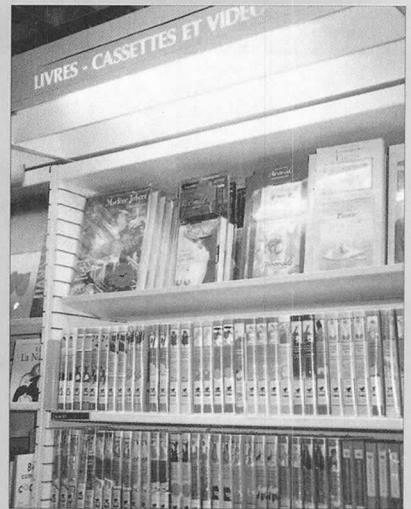
4천억원대 시장으로 추정

오디오북 업체들은 1~2년 내에 오디오북 시장이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본다. 오디세이닷컴의 김준철 대표는 “자가운전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정보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오북이 곧 대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디오북의 잠재 시장규모를 전체 출판시장의 10%에 해당하는 4천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아직 오디오북 업체가 가야할 길은 멀다. 우선, 녹음비와 성우·엔지니어·작가·PD의 인건비 때문에 오디오북의 제작원가가 높다. 오디오북 1권당 제작비는 3백만원~1천만원 정도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1만여권을 판매해야 한다. 시장 형성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이런 목표달성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디오북이 독서문화에 미치는 해악을 우려하기도 한다. 베스트셀러와 경제·경영서를 위주로 오디오북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에게 오디오북 기증 사업을 펼치고 있는 김솔옹씨는 “특정 분야만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면 결과적으로 편협한 독서문화를 부추긴다”며 “각 계층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오디오북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정은 기자



본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오디오북이 자가운전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일반인 사이에도 그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사진은 프랑스의 한 서점에 있는 오디오북 코너.